

입양 가족치료에 대한 기독교(목회) 상담학적 연구

안미옥* / 마음나루심리상담연구소, 대표

최근 한국에서 국내 입양과 함께 공개 입양이 증가하고 있으며 더욱이 기독교 가정 이 공개 입양에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은 고무적인 일이다. 하지만 입양에 관한 연구는 입양특례법을 둘러싼 법학적 연구, 아동 교육 분야의 연구, 사회복지 분야의 연구가 대다수를 이루고 있으며 기독교 입양 가정을 위한 상담학적 연구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따라서 본 논문은 기독교(목회) 상담학적 입양 치료에 접근하고자 한다. 먼저 한국의 입양 역사를 살펴보고 입양에 부정적 시각을 가지게 된 한국 사회의 배경에 관해 논하고자 한다. 다음으로 성경 속에 등장하는 입양 사례들을 바탕으로 성경과 입양, 기독교와 입양에 대해서 살펴볼 것이다. 이어서 입양 삼자들이 입양을 두고 각각 다르게 경험하는 역동과 이것이 가족체계에 미치는 영향들을 분석하며 입양의 심리학적이고 가족치료적인 면을 탐색할 것이다. 즉, 본 논문은 입양에 관한 사회적, 신학적, 심리학적, 그리고 가족치료적 논의를 바탕으로 입양 가족치료를 위한 기독교(목회) 상담학적 접근을 해보고자 한다.

■ 주요어: 입양인, 미혼모, 입양 부모, 가족치료, 기독교(목회) 상담

* 교신저자(Corresponding Author): 안미옥 / ahnmeeock@gmail.com

I. 서론

2018년 3월 연구자가 본 논문을 준비하고 있는 동안 미국 국무부는 “2017년도 해외에서 미국으로 입양된 아동의 현황”을 발표하였다. 전체 입양 아동 4,714명 중에서 중국에서 온 아이들이 1,905명으로 가장 많았고, 에티오피아가 313명으로 2위, 그리고 한국이 276명으로 3위를 차지하였다 (U.S. Department of State, 2018). 동 보고서에는 2008년부터 2012년까지 5년간의 통계도 담고 있는데 미국으로 가장 많이 아기를 보냈던 5개국에 한국은 한 해도 빠짐없이 언급되고 있다. 1988년 서울올림픽 당시 얻었던 “아기 수출국”이라는 오명을 얻은 한국 사회, 그로부터 30년이 지난 지금, 또한 OECD에 들어간 지 20여 년, 그리고 인구절벽의 위기와 각종 출산장려정책이 쏟아지는 속에서도 그 오명을 쉽게 벗어내지 못하고 있다.

다행히 국내 입양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2016년 한국 입양 통계에 의하면 국외 입양이 334사례였던 데 비해 국내 입양은 546사례였고(보건복지부, 2017), 입양에 관한 연구도 증가하고 있다. 또한 「기독교 타임즈」에 따르면 국내 입양의 경우 기독교 가정으로의 입양이 과반수를 넘고 있다(조혜정, 2011). 그러나 아직도 국내 입양의 경우 입양 후 지원이 충분하지 않다. 김향은(2006)의 연구에 따르면 입양 가정이 겪는 어려움으로 입양과 관련된 법률적, 재정적 문제, 입양 아동의 부적응 행동, 사회적 편견, 입양 후 충분하지 못한 지원 서비스 등이다. 유희경(2012)은 입양 가족들이 경험하는 사회적인 편견, 친자와의 갈등, 가족의 재구조화 과정에서 경험하는 갈등 등을 언급하고 있다. 이러한 갈등은 대법원의 국감 자료를 통해 2007년에서 2016년간 총 9,254명이 파악되었다는 보고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다(윤정원, 2017. 10. 25.). 이와 같은 연구들은 우리 사회에서 입양 가족이 하나의 가족의 형태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아직도 풀어야 할 과제가 남아 있음을 암시하고 있다.

입양에 관한 관심, 입양 가족치료의 필요성과 인지도 역시 확장되고 있지만, 입양 관련 연구는 입양특례법 등 법제적 차원의 분석이나 사회복지

차원, 아동교육 차원에서의 접근이었고 실제 가족치료적 관점에서의 연구는 많지 않아 입양 가족을 상담하기 위한 자료는 충분하지 않은 상태이다. 예를 들어 국내 학술지 사이트인 DBpia나 Kiss에 입양이라는 검색어를 넣으면 500여 편의 자료가 생성되지만, 연관어는 “국내 입양, 입양제도, 입양 특례법, 파양, 청소년 한부모, 미혼모, 청소년 임신·출산, 친양자, 입양, 중앙입양원, 해외 입양” 등으로 검색된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기독교인들이 일반인과 비교하면 공개 입양을 많이 하고 있음에도 기독(목회) 상담학적인 연구는 더욱 희박했다. 앞서 밝힌 DBpia, Kiss에 기독교 입양의 검색어를 넣으면 10개 미만의 논문이 나올 뿐이며 가족치료에 관한 것은 없다. 따라서 본 논문은 다음과 같은 점에 유념하면서 기독(목회) 상담학적 입양 치료에 접근하고자 한다. 먼저 한국의 입양 역사를 살펴보고 그동안 한국 사회에 뿌리내린 입양에 대한 편견을 탐색해 보고자 한다. 다음으로 성경 속에 등장하는 입양 사례들을 바탕으로 성경과 입양, 기독교와 입양에 대해서 살펴볼 것이다. 이어서 친생 부모, 입양 부모, 입양인이라고 하는 입양 삼자들이 입양을 두고 각각 다르게 경험하는 심리 내적 역동과 이것이 가족체계에 미치는 영향들을 분석하며 입양의 심리학적이고 가족치료적인 면을 탐색할 것이다. 입양에 대한 사회적, 신학적, 심리학적, 그리고 가족치료적 논의를 바탕으로 입양 가족치료를 위한 기독(목회) 상담학적 접근을 시도하고자 한다.

II. 본론

1. 사회적 논의: 한국 사회의 입양 역사와 입양 현황

사회복지학 사전에 의하면 입양은 “혈연관계가 없는 사람들이 법률적으로 친부모와 친자 사이와 같은 관계를 만드는 신분행위”¹⁾이다. 생물학적 관계가 아닌 법적·사회적 관계를 기반으로 가족을 이룬다고 하는 것은 한국의 뿌리 깊은 남아선호사상, 순수혈통주의, 단일민족주의와 깊은 연관이

있다. 한국의 입양에 대한 기록은 고려 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고려 시대에는 자손이 없는 집안에서 양자를 들여 양부모의 노후를 위탁할 수 있었다는 기록이 있다. 그런가 하면 당시는 아들로 대를 이어야 한다는 개념이 없었던 시대이기 때문에 양자 입양은 불우한 아동을 돌보고 은혜를 배풀기 위한 수단으로 보는 견해가 있기도 하다(이은주, 2013). 조선 시대로 넘어오면서 양자 제도는 가계계승과 조상제사에 큰 목적을 두고 자손 충족, 노후 의지, 사후재산 처분·위탁, 노비 증식의 수단으로 입양이 성립되었다. 3세 전에 입양되면 수양아들이 되어 적자와 같은 자격을 얻었으며 여자도 같은 자격으로 수양되었다. 아들만이 제사를 승계한다는 적장자 제사승계 관행은 조선 후기에 가서야 굳어진 관습이라는 주장이 있다. 한편, 아무도 돌보아줄 사람이 없는 고아가 있다면 지방관은 그 아이가 10세가 될 때까지 먹여주고 입혀줄 의무가 있었다는 기록이 있는 것으로 보아 조선 시대의 입양 역시 가계 계승뿐만 아니라 고아를 돌보는 방법으로 보고 있음을 엿볼 수 있다. 하지만 복지적 차원의 입양보다는 조상신을 모시고 가문의 대를 이어야 한다는 가족중심주의는 남아선호사상을 부추겼고 아들을 얻기 위해 처첩을 거느리는 것을 묵인하기도 하였다. 첩으로도 아들을 얻지 못할 때 친인척 간에 양자를 들이기도 했다(Kim & Henderson, 2008).

1961년에 입양특례법이 만들어지면서 해외 입양의 문이 열렸다. 한국 전쟁 후에 입양이 합법화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전쟁으로 인해 고아와 많은 혼혈아동이 생겼기 때문이다. 진명수(2011)는 한국전쟁 고아들이 입양된 점에 대해서 단순히 전쟁으로 인한 빈곤을 변명거리로 삼을 수 없다고 주장한다. 오히려 한국이 고아들을 품지 못하고 해외 입양을 보내게 된 데는 혈연을 중시하는 배타적인 한국적 가치관이 한몫하고 있다는 것이다. 표면적으로 입양특례법이 고아들의 복지와 보호를 목적으로 하고 있지만 그 이면의 숨은 목적은 원하지 않는 아이들을 수출해 버리는 것이라고 믿는 사람들도 많았다(정소라, 2016). 한국의 순수혈통주의는 “피는 물보다 진하다”라는 속담에 잘 드러나 있다. 그렇기에 피로 맺어진 가족이 아닌 입양 가족에 대한 스티그마(stigma)가 한국 사회 속에는 존재하고 있다.

1970년대의 산업화와 경제적 성장과 함께 미혼모와 그들의 자녀들도

증가했다. 이들 미혼모를 지원할 체제나 기관이 희박한 상태에서 미혼모의 자녀들은 보호시설로 보내졌고 이어서 해외 입양의 길에 올랐다. 전쟁 후에 혼혈아동이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에서 해외로 입양되는 사례는 줄지 않았다. 겉으로 보기에 한국 경제는 성장했지만, 사회적 불평등 속에서 저임금 노동자, 빈곤과 가정폭력을 피해 가출한 십대 미혼모의 자녀들이 입양의 반열에 합류하였다(전명수, 2011). 보건복지부 입양 통계에 따르면 1961-1970년 사이에 입양된 7,275명의 아동 중 미혼모의 자녀로 입양된 아동은 1,304명으로 18%에 불과했다. 하지만 1971-1980년 사이에는 총 입양아 48,247명 중 37%인 17,627명의 미혼모 아기가 해외 입양되었고 1981-1990년에는 65,321명의 아기가 해외 입양되었는데 이들의 72%인 47,153의 아기가 미혼모의 자녀였다(보건복지부, 2017). 이런 상황 속에서 1988년 서울올림픽이 열리자 한국은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켰는데 올림픽 주최국이라는 명성과 함께 “아기 수출국”이라는 별명까지 얻게 된 것이다. 「뉴욕타임스」를 비롯한 세계의 많은 언론이 한국의 해외 입양 실태를 보도하였다(Chira, 1988. 4. 21.; 권희정, 2015; Hübinette, 2005). 이와 같은 세계의 반응에 한국정부는 1995년 입양 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고 국내 입양을 추진하기 시작했다. 입양 기관들은 해외 입양을 주선하기에 앞서서 국내 입양 쿼터를 만족시켜야 했다. 그로부터 한국정부는 국내 입양을 지원하는 노력을 지속하였고 입양 가족에게 재정지원과 입양과정 규제 등 입양 전 훈련, 입양 후 관리, 아동복지 서비스가 추가되었다(김유경, 변미희, 임성은, 2010).

1990년 민법은 성년자라면 미혼여성이나 이미 자식이 있는 사람들에게도 입양을 허락하였다. 하지만 양자가 양부의 성을 따를 수 없었기에 양자를 친생자인 것처럼 신고하는 폐해가 발생하였다. 이에 대한 대안이 2008년의 친양자제도인데 입양을 비밀에 부쳐서 양자와 양부모 간의 관계를 긴밀히 하고 심리적 안정을 취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친생 부모의 부당한 간섭을 차단하였다. 이와 같은 친양자제도는 해외 입양을 줄이는 데 일조하였지만, 친생 부모와의 관계를 단절하고 법으로 친생관계를 날조하므로 윤리, 도덕, 관념 등의 기초를 파괴할 수 있는 위험요소를 안고 있다(이은주,

2013). 이러한 입양 과정에서 발생하는 딜레마에 대해서는 입양 유형 분석에서 좀 더 다루고자 한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한국 역사에서 입양은 가문의 대를 잇고 노후 대책의 하나로, 또한 고아의 구제방법으로 이루어져 왔다. 이러한 흐름은 한국전쟁 후 혼란스러운 사회 분위기와 함께 빈곤과 혈통주의를 빌미로 해외 입양의 소송들이 속으로 빠져들어 갔다. 그 후 아기 수출국이라는 오명을 벗기 위해 입양관련법은 꾸준히 변화하며 합리적 국내 입양의 길을 모색해왔다. 그런데도 매년 수백 명의 아기가 해외로 입양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김유경 등(2010)의 “국내 입양실태와 정책방안연구”가 그 실마리를 제공하고 있다. 이 연구는 일반 국민 1,000명에게 국내 입양 활성화 방안에 대한 질문을 포함하고 있었다. 응답자의 절반 이상(50.6%)이 입양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수정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입양법 제도의 개선(16.9%), 국내 입양 홍보강화(12.1%)와 공개 입양 제도의 활성화(5.2%)가 그 뒤를 이었다. 다시 말해 무엇보다도 입양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시급히 개선되어야 함을 지적하고 있다. 그렇다면 기독교인들은 입양을 어떠한 시각으로 보아야 할까? 성경에서 입양은 어떻게 다루어지고 있는가?

2. 신학적 논의: 성경의 입양 사례와 입양 신학

사회적으로 소외되고 환난 중에 있는 과부와 고아를 돌보는 것에 대해 구약은 30번 이상 권고하고 있으며 야고보는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의 모습은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것이라고 하였다. 그런가 하면 예수는 제자들을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는 약속을 하신 바 있다. 이 약속은 십자가 사건, 부활, 그리고 성령의 임재로 이루어졌다. 그렇다면 성경 속의 입양은 가계의 대물림과 사회정의 측면에서의 조명뿐 아니라 인간구원 역사의 은유로도 표현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Yeats, 2011). 이제 성경 속의 대표적 입양 사례를 간단히 살펴보고 혈통중심 관점과 기독교 윤리적 측면에서 입양에 대해 고찰해 보고자 한다.

1) 성경 속의 대표적 입양 사례

히브리 아기를 출산하고 양육한다는 것은 곧 죽음을 의미하는 극한의 상황 속에서 모세의 부모들은 결국 아기를 갈대 상자에 실어 보내었다. 마침 바로의 딸은 이 갈대 상자를 발견하고 모세를 입양하였다. 모세는 40세가 되기까지 이집트의 왕실에서 양육되고 교육받았지만, 친모의 젖을 먹고 자랐고 히브리인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출 2:1-14). 즉, 오늘날의 공개 입양과 비슷한 형태를 지녔다. 그는 자신이 히브리인임을 알았을 뿐만 아니라 동족애가 있었고 하나님을 알고 있었다. 결국, 동족애로 인해 살인죄를 저지르고 도주할 수밖에 없었던 모세는 40년의 광야생활 끝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유대민족의 출애굽을 인도한다.

구약의 사사 시대에서 왕정 시대로 옮겨가는 시점에 등장하는 사무엘 역시 입양되었다. 기도 끝에 얻은 아들 사무엘, 그의 어머니 한나는 사무엘이 젖을 떼 후에 서원한 대로 엘리에게 데려갔다(삼상 1:19-28). 짐작건대 한나는 일 년에 한두 차례 아들의 성장 모습을 지켜보는 것으로 만족해야 했을 것 같다. 입양의 이야기는 포로 시대에도 계속된다. 에스더는 사촌오빠 모르드개에게 입양되었으며 페르시아의 왕비가 된다(에 2:7-18). 그러나 하만의 꾀계로 이스라엘 백성이 위기에 몰리자 “죽으면 죽으리라”는 자세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기도와 행동을 취하게 된다(에 4:16). 성경은 에스더의 입양 과정에 관해 설명하고 있지 않다. 하지만 에스더와 모르드개는 위기에 처한 유대백성을 구하기 위해 신뢰감 속에 긴밀하게 움직이는 것으로 보아 성공적인 입양의 사례를 보여준다.

예수는 성령에 의해 잉태되었고 마리아와 요셉의 가정에 입양되었는데 연구자는 입양 과정의 갈등상황을 가장 잘 보여주고 있는 사례라고 생각한다. 사회적 전통과 규범을 거스르는 미혼모의 출산, 마리아와 요셉은 아기 예수의 부모가 된다고 하는 점에 두려움이 있었고 망설임이 있었다. 하지만 마리아는 천사를 만나고 요셉 역시 꿈에 천사를 만나 입양이라고 하는 중대 결정을 하게 된다(마 1:18-25; 눅 1:26-45). 요셉은 아기 예수를 자기 아들로 입양하면서 인류 구원의 역사에 동참하였다.

2) 구속 사역으로서의 입양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입양 관계에 대한 은유적 표현들은 구약성경 속에 자주 등장하는데 예를 들면 다음과 같은 구절들이다. “내가 여호와와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시 2:7). 성전을 짓겠다는 다윗에게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보내셔서 다윗이 아닌 그의 자손이 성전을 지을 것이라 말씀하실 때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라고 하셨다(삼하 7:14). 이러한 성경구절들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인정받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그리고 있다.

성경 속의 입양 이야기는 인간구원의 역사로 그 정점을 찍는다. Levin (2006)은 예수가 요셉에게 입양된 사실에 대해 자녀에게 가정을 공급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다윗 왕가의 유산을 물려준다는 의미와 함께 메시아적 전통이 입양을 통해서도 전달되었다고 주장한다. 예수가 인간 마리아와 요셉에게 입양되는 성육신의 사건은 다윗의 자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메시아를 넘어 인간이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며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되는 구원의 통로가 되었다. 그렇기에 사도 요한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요 1:12-13)라고 밝혔다. 사도 바울 역시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롬 8:14-15)라고 하면서 믿는 자의 양자 됨에 관해서 설명하고 있다. 그렇다면 입양에 대한 은유는 하나님 안에서 구속함을 얻음에 대한 중심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으며 기독교 사상에 중요한 개념으로 볼 수 있다. 이는 믿음과 사랑 안에서 새로운 가족이 창조됨을 가리키며 혈통 관계를 대체하고 하나님의 영원한 가족으로 환영받는 경험에 관해 설명하는 중요한 방법이다(Largen, 2012).

3) 혈통중심적 가족관은 성경적인가?

신원하(2004)는 한국 교회가 입양에 관한 신학적 연구가 부족하고 윤리적 실천에 약한 이유를 혈연중심 문화, 가난한 자와 소외된 자에 대한 무관심, 그리고 혈연중심적 언약 백성에 대한 오해로 보고 있다. 한국의 전통적 혈연중심 문화에 대해서는 한국 입양의 역사에서 다루었고 가난한 자와 약한 자에 대한 무관심은 부연설명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기에 혈연중심적 언약 백성에 대한 왜곡된 이해를 신원하(2004)의 논지를 빌어 정리해 보고자 한다.

성경 속에 나타난 구원의 역사가 입양과 관련되어 있음에도 왜 우리는 순수혈통에 대한 집착을 버리지 못하는가? 심지어 이러한 집착이 어떻게 해서 성경적 지지를 갖는 것으로 오해되기도 하는가?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은 아들이 없는 아브라함에게 후사를 주겠다고 하셨다. 그러자 아브라함은 자신의 상속자는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라고 한다. 즉, 엘리에셀을 양자 삼겠다고 했던 것인데 하나님은 네 몸에서 날 자가 네 후사가 될 것이라고 하셨다. 이와 같은 성경 말씀은 한국인의 혈통중심 문화와 부합하여 그 의미가 왜곡되어 하나님 역시 순수혈통을 선호하신다는 이야기로 받아들여지기도 하였다. 하지만 이미 창세기 12장과 13장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자손을 땅의 티끌 같게 하실 것이라는 약속을 하셨다는 사실과 이를 믿지 못하는 아브라함의 불신을 바로 잡아 주시는 부분에 방점이 찍혀야 할 것이다. 사실 구약은 중, 첩, 과부, 고아 때로는 거주민까지 가족 개념에 포함될 수 있으며 언약의 부르심의 대상이 될 수 있고 그 약속의 수혜자가 될 수 있음을 밝히고 있다. 이스라엘이 선택받은 것은 그들이 인종적으로 탁월하다든지 혈통적으로 우월해서가 아니다. 그들을 선택하신 하나님의 일방적이고 은혜로운 섭리였다(신원하, 2004). 하나님은 둘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시다(마 3:9).

엘리에셀 외에도 유다와 다말의 관계, 보아스와 룻의 관계, 또 복음서에 등장하는 사두개인들의 질문, 즉 형이 죽으면 동생이 형수를 아내로 삼아야 한다는 계대 결혼문화 역시 가문과 혈통을 강조하는 것으로 간주하기

쉽다. 하지만 계대 결혼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본다면 당시 생활 능력이 없는 과부와 고아에 대한 구제 장치라는 점이 우선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부활을 부인하는 사두개인들이 계대 결혼문화로 예수를 시험하려 하였을 때 예수는 그들에게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고로 오해하였도다”(마 22:29)라고 하신다. 부활에 대한 무지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은혜에 대한 무지였기 때문이리라. 예수는 이미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마 9:14)라고 말씀하셨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긍휼과 기독교인의 윤리적 책임이라는 측면에서 입양을 살펴보기로 하자.

4) 기독교 실천 윤리로서의 입양

한국입양홍보회의 공개 입양 부모의 현황보고서에 나타난 종교적 배경을 보면 개신교가 67.7%, 천주교가 9.7%, 불교가 3.2%, 무교가 19.4%로 압도적으로 개신교 가정이 공개 입양에 참여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백경숙, 변미희, 2001). 하지만 개신교를 중심으로 한 입양과 입양 가족에 관한 연구는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기독교 대학생들의 입양과 미혼모에 대한 인식, 디아스포라의 개념으로 해외로 입양된 한국인 입양인들을 보는 관점, 저출산 시대의 교회 생태계 파괴를 예방하는 차원에서의 입양, 입양 부모를 위한 기독교 교육적 함의 등이 연구된 정도이다(조혜정 2011, 2017; 김영동, 2017; 박은주, 2017). 이처럼 교회 차원에서 입양에 관한 관심이 저조한 이유를 신원하(2004)는 한국 교회가 사회적 봉사과 윤리적 책임에 대해 가르침을 소홀하였고 바른 기독교적 가족관이 확립되지 못했음으로 보고 있다.

하나님은 고아와 과부를 특별히 돌보시는 분이시다. 고아에 대한 부정적, 모성적 사랑을 가지고 돌보시는 하나님은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고아와 과부를 제도적으로 돌볼 것을 명령하셨다(신 27:19). 이스라엘 백성은 자기 가족뿐만 아니라 자기 친족과 지파도 일종의 확대된 가족 개념으로 생각해서 이들을 돌보아야 했기에 때로는 자기 지파와 친족 중에 고아가

있다면 자기 집안에서 돌봐주며 함께 살곤 했다. 그러므로 어떤 의미에서는 입양이 필요 없었을 수도 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친족을 돌보는 것에서 더 나아가 “이웃을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라고 공동체적 사랑의 명령을 주셨다(레 19:18). 자신을 낳아준 부모에게 양육 받을 수 없었던 아동을 초대하여 가족의 일원으로 삼는 것은 구원의 신앙적 체험이 현실 속에서 구현되는 것일 것이다. 엄밀한 의미에서 모든 부모는 입양 부모이다. 하나님이 맡긴 자녀를 기르는 청지기이다(신원하, 2004).

기독교적 인간관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인간이 역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타인에게 책임을 질 수 있는 인격성을 가졌다고 본다(손봉호, 1990). 그러기에 복음서는 믿는 자들에게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라고 명령하신다. 즉, 사회의 질서를 바로잡고 사회적 약자를 돌보는 삶에 있어 본이 되는 삶을 사는 것일 것이다. 입양은 어느 한 개인이나 단체가 주도하는 구제 사업이 아니라 사회적 약자를 도외시키는 문화적 풍토에 도전하고 사회 일반의 구제에 대해 깨달음을 주고 의식을 환기하는 사회 운동으로 볼 수 있다(전명수, 2011).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기독교인들의 높은 공개 입양 참여도는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 나가는 한 단면을 보여주고 있다.

Waters(2012)가 주장한 바와 같이 입양은 단순한 자선이 아니다. 입양은 이웃을 사랑하라는 계명, 즉 카리타스(caritas)에 기반을 둔 선한 사마리아인을 모델로 한 행동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선한 사마리아인이 자신이 도와준 사람과 장기간 친밀한 관계를 맺었다는 근거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입양은 이에서 더 나아가 가족적 소속감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 행동이며 가족 관계를 성립하고 상호작용하는 관계라는 점을 주시할 필요가 있다. Waters(2012)는 여기에서 입양은 자녀 없는 가정의 자녀를 공급하는 것이 우선 되어서는 안 되며 부모 없이 살아야 하는 아기들의 보호가 최우선 목적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이 시점에서 우리는 인간의 한계와 현실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인간은 불완전한 존재이고 불완전한 인간들의 만남과 노력은 때로 왜곡이나 관계의 남용을 가져오며 관계의 딜레마를 만들기도 한다. 이 점에

서 입양 가족 역시 가족치료가 필요할 수 있으며 이 가족치료는 입양 가족의 특수성을 이해한 치료이어야 할 것이다.

3. 심리학적 논의: 입양 유형 및 입양 삼자의 심리적 역동

앞서 한국전쟁의 비극과 순수혈통주의의 모순 가운데 입양의 부정적인 인식이 한국 사회 속에 뿌리내려 왔음을 살펴보았다. 반면, 성경 속의 입양 사례들에서 구속사적인 면에서 주목받는 긍정적인 면도 살펴보았다. 이제 입양의 구체적인 과정들 속에서 입양 삼자의 심리적 역동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1) 입양 유형

입양은 기본적으로 관계된 사람들, 즉 입양 삼자 모두에게 유익이 된다는 틀을 가지고 시작한다. 그러나 이론적으로 완벽한 상호유익의 틀은 현실 속에서 딜레마에 빠지기도 한다. 그중에 가장 어려운 문제는 입양 사실과 친생 부모의 정체성을 밝혀야 하는가 하는 것이다. 앞서 입양의 역사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입양법은 이 딜레마를 해결하기 위해 마치 팔려가는 당나귀의 우화 속의 아버지처럼 여러 가지 해법을 내놓았지만, 그 해법은 또 다른 문제를 불러오곤 했다. 따라서 입양 유형에 따라 가족 간에 흐르는 심리적 역동은 다를 수 있으며 상담사는 이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입양은 공개 정도를 두고 세 가지로 그 유형을 정리해 볼 수 있다. 입양 사실을 입양 자녀와 주변에 알리는 것을 공개 입양이라고 한다. 더 나아가 입양된 사실뿐만 아니라 친생 부모의 정체성을 밝히고 소통하고 지내는 것을 개방 입양으로 구분한다. 이 모든 것이 비밀에 부쳐진다면 비밀 입양이 될 것이다. 공개 입양과 비밀 입양, 그리고 개방 입양은 당사자들이 어느 위치에서 있는가에 따라 서로의 이해가 상충하고 대립의 구도를 가져올 수 있다. 이제 각각의 경우를 살펴보고자 한다.

(1) 비밀 입양

비밀 입양은 친생 가족의 정보가 부재하거나 친생 가족과 입양 가족 간의 접촉이 전혀 없는 가운데 이루어진다. 양육의 용이성과 혈연중심적 한국의 가치관은 최대한 입양을 비밀로 하려는 경향이 있다(이기영, 윤연옥, 2010). 아기가 양부모에게서 태어난 것처럼 출생신고를 함으로 친생 부모에게 아이를 빼앗길 수 있다는 입양 부모의 불안을 줄일 수 있다. 입양 가족의 재구조화도 수월하고 사회적 편견으로부터 자녀를 보호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김상용, 2009).

하지만 비밀 입양은 정체성의 문제를 일으키며 입양인의 발달과정에 어려움을 가져올 수 있고 신생아 위주의 선별적 입양이 이루어져 1세 이상의 연장 아동은 입양되기 어렵다. 허위 출생신고에 의한 가족관계 등록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입양 부모는 입양 자녀의 배경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한다는 사실에 불안해 할 수 있다. 또한 불법적인 입양 과정을 통해 비밀 입양이 이루어진 경우, 입양 가정의 양육환경이 변화하면서 친생자관계존부확인 소송이 생길 수 있고 파양의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 파양의 상황에서 친생 부모로부터 출생신고가 되어 있지 못한 경우 입양아는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받지 못한 채 유기아 신분이 되어버릴 위험도 있다(윤진숙, 2014).

(2) 공개 입양

공개 입양은 입양 사실에 대해 입양 자녀는 물론 주변에 공개하는 것이다. 공개 입양을 선택한 부모들은 진실에 기반을 둔 부모-자녀 관계를 갖고 싶었기 때문이라고 공개의 이유를 밝히고 있다. 물론 사회적 편견을 견뎌내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지만, 이들은 가족관계 등록 절차를 통해 입양하고 입양 사실을 공개하는 것이 자녀들이 바람직한 정체성을 형성하는 데 도움을 주고 삶의 적응력을 강화한다고 믿는다. 하지만 입양 사실을 공개하더라도 친생 부모의 정보를 모른다는 점에서 개방 입양과 다르다. 즉, 친생 부모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은 상태의 입양이다. 그러므로 아이의 양육권은 철저히 양부모에게만 있다(남연희, 김의남, 2006).

(3) 개방 입양

개방 입양은 친생 부모가 입양 전후에 개입하는 것으로 아동의 복지와 권익을 향상하고 동시에 친부모와 양부모의 권익을 보호하며 입양의 안정성을 도모하려는 시도로 볼 수 있다. 최진섭(2012)은 개방 입양을 위한 법제화, 즉 입양 후에도 친생 가족과 접촉할 수 있는 면접교섭 관련 사항, 입양아 중심의 입양 제도로서 입양아, 입양 부모, 친생 부모의 삼자 관계에 관한 제도, 입양 가정의 안정성에 도움이 되고 과양 시 입양아의 희생을 최소화할 방안 등이 제도화되어야 함을 주장하였다. 개방 입양의 경우 친생모가 자녀의 상실로 인한 고통을 줄일 수 있으며 입양아에게 유전적 질병이 발생했을 때 유전 정보를 알 수 있다는 유익이 있다. 하지만 개방 입양은 한국의 장자중심주의, 대를 이어야 한다는 문화적 가치관, 친자입적 선호 분위기 등 기존의 고정관념과 상반할 수 있다. 또한 성폭행으로 인한 임신과 같이 자신의 임신과 출산 사실을 숨기고 싶은 경우의 입양이라면 친생모는 철저한 익명성 보장을 원할 수 있다. 현재 한국에서 개방 입양은 많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지만, 성인이 되어 친생 부모를 찾고자 하는 입양인들이 증가할 때 개방적인 입양의 형태도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의 입양 정책 변화는 입양의 형태에도 큰 변화를 가져왔다. 따라서 입양 가족을 돕는 상담사는 입양 형태에 따른 가족들의 강점과 약점을 이해하고 도울 필요가 있다. 1990년대부터 국내 입양이 증가해 오고 있지만, 아직 비밀 입양이 다수이며 입양인의 나이도 많아야 30대일 것이다. 즉, 한국의 입양 정책에 아직 입양인들의 목소리가 반영되기에는 그 역사가 충분하지 않을 수 있다. 하지만 그동안의 입양 관련 연구와 입양 자녀들이 성장하여 친생 부모와 가족을 찾고자 하는 바람을 표현하기 시작하면서 점차 개방 입양 쪽으로 변화하고 있다(김경아, 2002).

입양 유형을 정리하면 가족치료의 대상에 대한 윤곽을 잡는 데 도움이 된다. 비밀 입양인 경우 입양 사실이 비밀에 부쳐져 있으면서 생길 수 있는 상황들을 포함하여 입양인과 입양 부모에 대한 가족치료를 준비해야 할 것이다. 만약 공개 입양이라면 역시 입양인과 입양 부모와 가까운 사람들이 입양 관련 상담을 받을 수 있다. 개방인 경우는 친생 부모와 입양 부모가 서

로 안다는 것을 전제로 하면서 당면하는 문제 역시 다른 양상을 띠 것이다.

2) 입양 삼자의 심리적 역동

입양을 둘러싸고 입양 삼자 간의 입장, 경험, 정서, 아픔의 근원과 형태는 다르다. 그러므로 입양 삼자가 입양으로 인해 겪을 수밖에 없는 심리적 역동에 대해서 기술해 보고자 한다.

(1) 친생 부모

친생 부모라고 하지만 많은 경우, 부(父)보다는 주로 모(母)와 그녀의 가족이 겪게 되는 심리적 역동이 주로 논의된다. 미혼부나 그의 가족들은 자녀에 대한 권리를 여성에게 양도하거나 부모자녀 관계를 부정해 버리는 일이 많기 때문이다(김혜영, 2018). 한국 사회의 부계혈통에 대한 집착과 비교해 볼 때 이는 아이러니한 일이 아닐 수 없다. 2015-2017년 미혼모, 미혼부의 통계를 보면, 미혼모가 22,065명이지만 미혼부는 8,424명에 불과하였다(통계청, 2018). 한국의 미혼모들은 사회적 편견과 차별대우, 부족한 사회복지 지원으로 인해 자신의 아이를 양육하지 못하고 입양을 결정하게 된다(임혜영, 2013). 이 과정에서 종종 친생모는 상실을 부정하도록 강요당한다. 즉, 아이는 낳았지만 낳지 않았으며, 어머니이지만 어머니가 아닌 이중 구속의 딜레마를 경험하는 것이다(Soll & Buterbaugh, 2003/2013). 아기를 포기할 때 많은 친생모들은 장차 경험할 상실감에 대해 전혀 준비되지 못한 채 단지 시간이 지나면 고통이 사라질 것이라 믿는다. 하지만 그들은 자신들의 감정을 부정하면서 살게 되고 그런 가운데 심리적 부적응, 정신증적 증상을 경험하기도 하는 것이 현실이다(Neil, 2013). 친생 부모가 아기를 입양시키는 과정에서 겪어야 했던 심리 내적 과정을 이해하고 죄책감과 불안, 분노, 두려움을 포함한 상실과 애도 과정에 대한 치료적 개입이 필요하다.

(2) 입양 부모와 가족

아기를 입양한 가족의 경우, 젊은 난임 부부의 입양과 이미 자녀들이 성

장한 후 아기를 입양하는 중년의 부부, 그리고 새로운 동생을 받아들이는 형제와 자매로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다. 난임으로 입양하는 경우 기임 능력 상실에 대한 애도와 입양에 대한 견해 차이로 부부간의 갈등을 경험할 수 있다. 김유경 등(2010)의 연구에 의하면 아직 비밀 입양이 대세인 한국 상황에서 이미 자녀가 있는 중년 부부보다는 자녀가 없는 가정으로 입양될 확률이 높다. 따라서 비밀 입양으로 인한 문제들을 경험할 수도 있다.

입양아를 동생으로 맞는 형제자매들은 동생이 생긴다고 하는 기대감을 가졌다가 막상 입양 후에는 자신에게로 향했던 부모의 관심이 나뉘게 되어 경쟁 구도에 들어가면서 상실감, 분노, 질투 등의 양가감정을 느낄 수 있다. 친생자녀는 심지어 입양된 형제에게 쏠리는 부모의 관심을 보면서 자신이 입양되지 못한 죄책감까지도 느낄 수 있다(Verrier, 1993/2013). 친생자녀와 입양 자녀를 함께 양육할 때, 자녀들 각자의 기질과 자질에 맞는 양육 태도보다는 지나치게 공평해야 한다는 생각에 집착할 수도 있다(권지성, 안재진, 최운선, 2014).

입양 후 입양 부모의 스트레스 요인은 혈연을 중시하는 한국 사회에서 근본을 알 수 없는 입양아에 대한 편견, 입양 자녀에게 언제 입양에 대해 알려줄 것인가 하는 문제, 중년기에 입양한 경우 남은 생의 설계와 양육의 양립에 대한 도전, 양육 스트레스 등이다(조혜정, 2017).

(3) 입양인

한 인간의 정체성을 입양인과 비입양인으로만 정의할 수는 없다. 입양은 정체성을 이루는 수많은 요소 중의 하나에 불과할 뿐이다. 하지만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질문, 왜 자신이 입양되어야만 했을까? 친생 부모는 어떤 사람일까? 이러한 질문들을 입양인들은 수없이 곱씹을 뿐 아니라 주변으로부터 듣는다. 사춘기에 접어들면서 더욱 심각한 정체성의 위기에 직면할 수 있다. 정체를 알 수 없는 친생 가족과 버림받았다는 생각이 정체성의 위기를 가중시킬 수 있다(안재진, 최운선, 변미희, 권지성, 2017). 이들은 친생 부모가 생존하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생각, 친생 부모를 영영 찾을 길이 없을지 모른다는 생각 등에 좌절을 경험하기도 한다(한연희, 2015). 권지성,

정익중, 민성혜, 신혜원(2012)은 연장 아동들의 입양됨의 의미 연구에서 입양인의 심리 내적 상황을 다음과 같이 그리고 있다.

너무 어린 시절(만 1세 직후)에 입양된 경우 입양 사실을 기억하지는 못하지만, 친생 부모에 대한 원망이나 그리움의 감정들을 갖게 된다. 입양 사실을 기억할 만큼, 인지능력이 발달한 이후에 입양된 아동들은 친생 부모들에 대한 기억도 갖고 있으며 그들로부터 버려진 상처도 여전히 남아 있다. 그래도 이러한 과거는 기억으로만 남아 있는 반면에, 시설 생활은 습관으로 남아 있어 좀처럼 벗어나기가 어렵다. 생활 시설에서 단체생활을 하면서 몸에 익히게 된 습관들(예를 들어 보육사와 같은 특정 개인에게는 마음을 주지 못하면서도 낯선 사람들에게 선뜻 다가가기면서 친한 척하는 행동들)은 입양 부모들로서는 좀처럼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다(권지성, 정익중, 민성혜, 신혜원, 2012, p. 58).

자신의 입양 사실을 가족 외부로 공개한다는 것은 그 시점과 대상에 있어서 입양인에게 갈등과 스트레스의 요인이 될 수 있다. 공개 입양은 부모들의 선택이며 입양 자녀를 포함한 가족 전체를 고려한 판단이었을 것이다. 하지만 입양 당시 아기들은 이에 대한 인식 능력이 없다. 입양아가 입양이 무엇인지 깨달았을 때 이미 주변 사람들이 입양 사실을 알고 있기에 공개여부는 의미가 없을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새로운 친구, 새로운 학년, 새로운 환경에서 언제, 어디까지 입양에 대해 공개할 것인가는 도전일 수 있다. 입양 사실 공개 후에 주변 사람들이 입양을 좋게 이야기해주는 긍정적인 반응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아이들에게 놀림이나 따돌림의 대상이 되고, 가짜 엄마와 사느냐, 진짜 엄마가 누구냐는 질문을 받는 등 부정적 경험을 하기도 한다(권지성 등, 2012).

입양과 관련하여 입양 삼자의 관점에서 각각의 경험을 살펴보았다. 입양은 아직 사회적 편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상실감과 수치감이 깊이 자리 잡고 있다. 이 상실감과 수치감은 유기불안과 분노로 이어질 수 있다. 이제 입양 가족치료를 위해 상담사가 준비해야 할 것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4. 가족치료적 논의

입양 자녀는 비입양 자녀보다 정체성 위기나 입양 가족의 삶에 동화되는 것을 포함한 삶의 갈등을 자주 경험한다(Firmin & Fulmer, 2007). 입양 부모 역시 비입양 부모보다 심리적 스트레스가 심하다. 특히 자녀가 문제로 낙인이 찍히거나 부모자녀 간의 역기능적 상호작용이 있는 경우 더욱 어려움을 겪는다(Lionetti, Pastore, & Barone, 2015). 이제 입양 가족의 특성과 가족치료를 위한 사정에서 염두에 두어야 할 부분들을 살펴보기로 한다. 구체적인 가족치료적 개입은 지면 관계상 다루기에 한계가 있으므로 본 논문에서는 치료적 동맹 시, 입양 관련 정보 파악 시, 그리고 가계도 활용과 가족발달 단계 활용 시의 유의사항만을 논하기로 한다.

1) 치료적 동맹

모든 치료는 내담자와 상담사의 치료적 동맹을 전제로 시작한다. 책임감 없이 자신을 포기한 친생 부모, 자신의 버려짐을 방관한 하나님, 내면 깊은 곳의 아픔을 이해하지 못하는 입양 부모, 길러준 은혜를 저버리는 자녀, 등등 입양 가족은 서로가 서로를 문제시하고 아픔을 투사하고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상담사는 입양 가족의 구성과 역동의 독특성에서 오는 도전들, 그리고 관련인들이 경험하는 죄책감, 수치감, 상실감, 불안, 분노에서 비롯된 왜곡된 인지와 행동, 부정적 상호작용들로 인한 문제를 정의하고 이 문제를 다루기 위해 가족들과 동맹 관계를 맺어야 한다.

이러한 치료적 동맹의 과정에서 주요역할을 하는 것은 상담사의 공감 능력과 입양인과 가족의 인권 및 소외감에 대한 인식이다. 상담사는 입양에 대해 어떤 인식을 하고 있는가? 입양에 대한 주제는 회피하려고 하지 않는가? 입양 주제에 대해 얼마나 열린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특별히 기독교(목회) 상담사들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행동”으로만 입양을 해석할 때 입양 가족의 가족 됨을 구제의 차원으로 축소할 수 있다는 점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 한편, 상담사가 보기에 입양이 현재의 문제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어

보인다 하더라도 입양인이 입양에 관해 이야기하길 원치 않는다면 기다리는 인내도 필요하다(Langrehr, Yoon, Hacker, & Caudill, 2015).

2) 입양 관련 정보 파악하기

입양 동기, 입양 과정, 입양 사실 수용 정도, 입양 공개 정도 등을 파악하고 이로 인한 가족의 역동을 이해한다. 난임이 입양의 가장 많은 동기가 되지만 기독교 가정에서는 고아를 돌보라는 성경의 가르침에 순종한다는 신앙적 결단,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보답하고 복을 나누는 방법, 또는 선교적 사명이 입양의 동기가 될 수 있다(Firmin & Fulmer, 2017). 신앙적 결단으로 이루어진 입양이 입양 후 가족관계가 힘들어진다면 이에 대한 좌절과 실망은 단순히 개인이나 입양 기관을 넘어 신앙적 회의와 원망으로도 발전할 수 있다.

입양에 대한 환상을 버리고 현실적인 점점을 도와주는 것이 상담사의 몫일 것이다. 이를 위해 상담사는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해볼 수 있을 것이다. 입양 과정은 비밀 입양, 공개 입양, 또는 개방 입양인가? 입양 과정 중에 갈등이 있었다면 어떻게 해결하였나? 비밀 입양을 선택한 경우 입양 사실 공개에 대한 준비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공개 입양의 경우 사회적 편견으로부터 어떤 방법으로 입양 자녀와 가족을 보호해 왔는가? 입양 후 갈등상황은 무엇이었으며 어떤 방법으로 해결을 시도하였는가?

3) 가계도와 가족 발달단계

가계도는 가족의 행동 패턴을 발견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가족 유형이 지닌 역기능적 구조를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된다. 또한 가계도는 가족을 힘들게 하는 문제로부터 정서적 거리감을 유지하는 데 유용하기 때문에 사정 도구인 동시에 개입 전략으로 사용될 수 있다. 입양 가족의 가계도 작성 시 친생 부모의 정보가 가능하다면 입양 가족 가계도와 함께 그려 보도록 한다. 어디서 정서적 단절이 일어났는지 해결하지 못한 상실은 무엇이며 '다름'을

수용한다는 의미를 가계도를 통해 탐색해 볼 수도 있다. 입양에서 상실은 중요한 개념이며 가족 모두가 서로 다른 상실을 경험하고 있기에 서로가 애도하고 있는 부분이 무엇인지 소통할 기회로 삼을 수 있다.

입양 시 입양아를 포함한 가족들의 나이, 부모, 형제간의 관계 등이 파악될 필요가 있다. 입양 당시와 현재의 가족발달 단계를 확인하고 그 단계에 필요한 발달과제와 입양과의 상호역동 관계를 탐색하는 것도 중요하다. 가족 발달단계에 따라 과업도 다르기 때문이다(최규련, 2014). 예를 들어 중년 부부가 입양을 했다면 자녀와의 나이 차이가 부모-자녀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살필 필요가 있다. 부모의 생애 발달주기에 따른 갭년기적 증상이나 사회적 은퇴가 가족에게 미치는 영향, 공개 입양인 경우 확대가족의 반응이나 사회적 편견을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에 대한 사정도 필요하다.

5. 기독(목회) 상담학적 논의

연구자는 최근에도 한 입양인으로부터 하나님을 향한 분노와 원망에 찬 문자메시지를 받았다.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어떻게 “엄마는 아기를 돌본다”라는 당연한 질서가 무너지는 것을 방관했으며 이로 인해 자신의 삶 속에 벌어진 수많은 상처를 허락했는가 하는 것이다. 이에서 발생한 공포, 불안, 분노와 원망, 수치감의 소용돌이는 인간의 영적 시각까지 마비시키곤 한다. 친생모 역시 생의 위기와 딜레마 앞에서 부모와 교회의 지원보다는 비판과 비난, 정죄를 기억하고 있는 경우 신앙의 위기를 경험한다. 미혼모에 대한 교회의 비판과 징벌적인 눈초리들은 미혼모를 죄책감에 시달려야 할 실패자로 머물게 하고 그녀의 아기는 실수 그 자체가 된다. 이런 상황에서 그들은 하나님의 선하심이 자신들의 삶 속에서 역사하고 있음을 수용하기 어렵다(Verrier, 1993/2013).

이들은 교리상으로 알고 있는 하나님, 즉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 전지전능한 하나님과 삶 속에서 경험하는 방관자 하나님, 무능한 하나님 사이의 괴리에서 두려워하고 분노하곤 한다. 그리고 기독(목회) 상담은 신학이라고

하는 밧줄을 잡고 이 괴리의 계곡을 넘나들고 있다. 권수영(2017)은 이런 신학을 교리적 신학(doctrinal theology)과 작용적 신학(operational theology)으로 구분하여 설명하고 있다. 그에 따르면 교리적 신학은 인지적 사고와 신앙 고백적인 구술을 바탕으로 하고 있으며 작용적 신학은 심리학적 이해가 필요한 가슴에 있는 신학이다. 기독교(목회) 상담은 삶의 도전과 심리적 역동 속에 왜곡된 작용적 신학을 바로잡아 가는 과정이다. 그렇다면 이제 입양과 관련하여 왜곡된 작용적 신학은 무엇이 있으며 그것을 바로잡아 가는 상담은 무엇이어야 하는가? 기독교(목회) 상담적 논의에서는 실존적 이슈들을 다루고자 한다. 즉, 입양을 중심으로 경험하는 수치감, 트라우마, 상실에 대해 기독교적 렌즈를 통해 조명하고 인식의 재구조화를 시도하여 하나님의 시선으로 입양을 바라보도록 돕는 것이다.

1) 수치심과 존재의 딜레마

입양인이나 친생모가 경험하는 수치심은 자신에 대한 혼란, 회의, 무가치성으로 이어지면서 존재의 딜레마를 경험하게 만든다. 비록 입양 부모로부터 자신이 선택되었고 사랑받는 존재라는 확인이 있더라도 이러한 딜레마를 극복하기에는 충분하지 않다(Verrier, 1993/2013). 수치심에 대한 이해를 위해서는 그 자신이 양부 밑에서 자란 경험이 있는 Erikson(1982)의 설명이 도움이 된다. 그는 죄책감을 청각의 경험으로, 수치심을 시각의 경험으로 구분하여 설명한다. 다시 말해서 잘못된 일에 대해 부모의 훈계를 기억하는 것은 죄책감이고 훈계 과정에서 벌 받는 자신의 모습을 기억하는 것이 수치심이라는 것이다. 죄책감은 교정 가능성이 있는 행동이 대상이지만 수치심은 수치스러운 자신의 존재가 대상이기 때문에 존재적 딜레마에 빠질 수 있다.

창세기 3장은 최초의 인간이 경험한 수치감을 그리고 있다. 아담과 하와는 자신들의 벌거벗었음을 깨닫고 수풀 속에 숨었다. 하나님은 누가 너의 벗었음을 알려주었는가 하고 물으신다. 이 대목에서 수치심은 하나님에게서 온 감정이 아닌 인간 내면에 스스로 가지게 된 정서적 경험임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수치심은 인간이 가진 오만한 욕구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대 사이에서 새롭게 자신의 정체성을 확인시켜 줄 수 있고 그런 면에서 긍정적 기능성을 가지고 있다(권수영, 2017). 버림받았다는 수치심은 받아들여지는 존재 경험의 조건이 된다. 존재의 딜레마 속에서 수치심을 경험해야 하는 인간은 성육신하여 자신과 동일한 실존적 조건에서 그리스도가 내 주하시며 함께 수치심을 경험하셨다는 사실에서 극복의 실마리를 찾는다. 다시 말해서 “죄와 징벌”의 도식이 아닌 “나의 수치와 예수의 수치”의 도식을 받아들이면서 전환으로 견인해야 하는 것이 기독(목회) 상담사의 몫이다(권수영, 2017, p. 127).

예수는 인간 사회의 인습적인 수치의 울타리를 패넘치 않고 세리와 함께 식사하셨고, 간음하는 여인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시고자 했다. 입양인과 친생모에게 수치감을 더하는 한국 사회의 혈통중심주의 문화, 미혼모에 대한 차별, 여성 차별, 미혼모에 대한 사회적 편견 등의 거대담론 속에 기독(목회) 상담사는 그리스도의 이러한 본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2) 버려짐의 트라우마

버려짐의 수치심에 이어 버려짐의 트라우마를 살펴보려고 한다. 트라우마는 정신적 외상으로 잘 극복하지 못한다면 지속적인 침투 현상, 회피성, 각성 증상으로 고통을 받으며 자기, 타인, 그리고 세상을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PTSD(Post Traumatic Stress Disorder: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로 빠진다. 입양을 버려짐에 대한 트라우마로 경험하면 종종 유기불안으로 이어지고 무력감에 빠지거나 분노 행동으로 표출되면서 가족 구성원들에게 상처를 입히고, 상처 입은 구성원들은 서로를 품을 수 있는 힘을 잃은 채 부정적 상호작용과 악순환의 고리에 빠지기 쉽다. 따라서 입양 가족 역시 버려짐의 트라우마 상황에 놓일 수 있다. 물론 친생모도 아기를 입양 보내는 과정에서 친생부나 주변으로부터 버려짐을 경험했을 확률이 높다.

트라우마 경험이 반드시 PTSD로 끝나는 것이 아님을 내담자와 상담사는 기억해야 한다. Boals와 Schuettler(2011)는 트라우마 상황 속의 핵심 인

몰이었던 사람들을 대상으로 연구하였는데 이들의 트라우마 경험은 양날의 검(a double-edged sword)이었음을 발견하였다. 즉, 트라우마 사건이 무조건 PTSD로 발전하는 것이 아니라 PTG(Post Traumatic Growth: 외상 후 성장)도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PTG는 트라우마 사건 자체가 아닌 트라우마와 관련된 주요 신념들을 재검토하면서 일어난다고 이들은 주장하고 있다.

트라우마 관련 주요 신념에 대한 검토가 PTG와 관련이 있다는 것은 2005년 Exline, Smyth, Gregory, Hockemeyer, 그리고 Tulloch의 실험에서도 나타났다. 이들은 15명의 PTSD 진단을 받은 사람들의 외상 경험을 신앙의 틀(religious frame)을 가지고 3회에 걸쳐 이야기하도록 하고 10명의 또 다른 PTSD 진단받은 사람들을 통제 그룹으로 삼았다. 첫 회기에서 대상자들은 통제 그룹보다 부정적인 정서를 보고하였다. 그러나 3회기 후에는 통제 그룹보다 긍정적인 정서를 보고하였으며 자신들이 경험했던 외상을 새로운 통찰력을 가지고 성장의 이야기를 써 내려갔다. 연구자들은 이들의 이야기를 분석하며 신앙의 틀이 유용한 통찰력과 의미를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왔다고 주장하였다.

입양 삼자 모두 가슴 깊은 곳으로부터 “왜 내가 버려짐을 당해야 했던 말인가?” 하는 통한의 외침이 있을 수 있으며 종종 그 외침의 종착역은 하나님이다. 그렇다면 버려짐의 트라우마 경험이 스트레스 장애로 남지 않고 성장의 기점이 될 수 있는 기독교(목회) 상담적 기반은 무엇인가? 첫째, 기독교인은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할 수 있다는 것이다. 로마서의 말씀대로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앎이라”(롬 5:3-4). 환난이 소망을 가지는 근거가 되는 것이다. 둘째, 환난 속에서 부르짖는 통한의 외침이 낫설지 않다는 데 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것은 십자가 위에서 예수가 부르짖었던 버려짐의 외침이다.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인정받았던 예수가 이 버려짐의 부르짖음을 했다는 것이 회복을 위한 반전의 사건이다. 버려짐의 트라우마는 나만의 고통이 아니요, 하나님의 아들마저도 경험해야 했던 고통이

다. 하지만 예수의 버려짐의 트라우마는 부활과 인류 구원의 길로 승화된 최고의 PTG로 마무리된다.

3) 상실과 애도

입양은 새로운 관계 형성이요 새로운 출발이지만 기존 관계의 상실을 전제로 하고 있다. 이러한 상실은 입양 부모, 친생 부모, 입양인 삼자 모두에게 해당한다. 하지만 이들의 상실은 애도하지 못한 채 억압되고 차단되기 쉽다. 따라서 가족원 각자가 경험한 상실이 무엇인가를 살피고, 이들의 애도 과정과 회복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친생모의 아기 상실감은 가족, 섹슈얼리티, 직업, 애착, 친밀감, 헌신에 대한 문제 등 심리적 부적응, 정신증적 증상을 경험하기도 한다(Verrier, 1993/2013; Elsbeth, 2013). 입양 후, 친생모들은 결혼에 실패하고 후천성 난임을 경험하기도 한다. 결혼하고 출산한 경우에도 기왕에 아기를 포기했던 어머니라는 죄책감은 그들로 하여금 좋은 어머니로서의 자신의 모습을 그려가기 어렵게 된다(Verrier, 1993/2013). 입양아가 느끼는 상실은 단순히 어머니의 상실을 넘어 자신의 신체 일부를 잃은 것과 같으며 실제 환지통이나 죽음의 느낌을 경험했다는 보고도 있다(Verrier, 1993/2013). 입양 부모는 입양에 앞서 가임능력 상실을 경험했을 수 있고 입양 후 기대했던 부모자녀 관계와는 달리 입양 자녀의 반항이나 친생 부모 찾기를 당면하면서 경험하는 상실의 아픔을 상담실로 가져올 수 있다. 이러한 입양 부모의 상실감은 입양아의 무의식적 근원을 이해하지 못했을 때 심화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상실에 대한 치료는 적절하고 충분한 애도이다. 상실에 대한 애도의 장을 마련하고 충분히 슬퍼하고 그리워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해 주는 것이 상담의 몫이다. 예수님도 아끼는 친구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그 상실을 애통해하셨다. 충분히 애도하지 못한 상실은 인간을 약하게 하고 예측불허의 감정에 빠지게 한다. 따라서 각자의 상실에 대해 비판의 두려움이나 죄책감 없이 충분히 표현할 수 있는 시간과 장소를 허락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 가족치료 중에 이러한 상실과 비탄함에 대해 표현할 수 있도

록 하고 나머지 가족들은 묵묵히 들어주는 연습을 통해 상실을 충분히 애도할 수 있는 이해와 수용, 공감과 대화를 촉진할 수 있다.

연구자는 입양 가족들의 상실에 대한 애도와 함께 또 다른 재구조화를 시도해 보고자 한다. 즉, 청지기 개념이다. 부모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청지기일 뿐이며 청지기에게는 순종과 헌신이 있을 뿐이다. 자녀가 불안과 좌절, 아픔과 분노를 행동화할 때 부모는 혼돈과 배신감을 느끼며 무력해 지곤 한다. 그리고 이러한 무력감과 부적절감은 자신의 정체성을 입양 부모로, 또는 자녀를 포기했던 친생 부모로 확인할 때 더욱 깊어질 것이다. 하지만 자녀는 내 소유가 아니요, 아이의 진정한 부모는 하나님이심을 인정한다면 입양모와 친생모는 서로의 존재를 인정해 줄 수 있으며 아이를 잃을지 모른다는 두려움이나 배신감, 죄책감에서 자유로울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자유 속에서 입양 부모는 자녀들과 입양에 대해서 더욱 진지하게 이야기할 수 있다. 입양 자녀가 자라서 친생 부모를 찾는다는 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며 입양에 대해 자녀가 가지고 있는 의문이나 염려에 대해 거리낌 없이 이야기할 수 있고 자녀의 삶이 평안하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을 진솔하게 표현할 수 있을 것이다.

4) 하나님의 시선으로

인간은 삶의 무게가 버겁다고 느껴질 때, 무력감과 함께 피해자로서 자신을 인식하기 쉽다. 예수께서 낚기를 원하느냐고 물으실 때조차 낚기를 원한다는 소원을 피력하지 못하고, 물이 동할 때 자신을 넣어줄 사람이 없다는 신세타령만 했던 실로암 못가의 38년 된 병자와 같이 말이다. 이 병자의 인지체계는 물에 들어가야 낚는다고 하는 논리에 기반을 두고 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역시 나면서부터 소경된 사람은 누구의 죄 때문인가? 일곱 형제와 모두 결혼했던 여인은 사후에 누구의 아내가 되는가? 등의 질문으로 예수를 공격했다. 이들의 질문은 명분과 논리 속에 갇힌 피해자의 시선을 하고 있다. 이에 대해 예수는 이들의 질문이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한 데서 나온다고 지적하신다. 사실 이러한 지적은 당대 최고의

지성인 니고데모도 받았다. 그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일어날 수 없는 기적들을 보고 하나님의 나라를 보기 위해 예수를 찾았다. 거듭남이 그 비결이라는 답을 들었지만,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다. 예수는 시선을 바꾸라고 알려주신다. 육의 눈이 아닌 영의 눈으로, 정죄와 심판을 바라보는 시선이 아닌 구원과 영생을 향한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보라고 하신다. 입양이라고 하는 독특한 상황 속에 자의로든 타의로든 개입된 구성원들이 때로 느끼는 무력감이나 상실감, 거부감이 피해자 의식으로 연결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자신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자신에게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다른 사람이나 세상을 탓하지 않으려고 해야 한다. 기독(목회) 상담사는 피해자의 시선이 아닌 하나님의 시선으로 자신의 삶과 세상을 바라보도록 입양 삼자와 동행해야 할 것이다.

III. 결론

본 논문은 입양의 사회적, 신학적, 심리적, 가족치료적 논의를 통해 기독(목회) 상담학적 접근의 토대를 마련하고자 하였다. 먼저 한국 사회에 뿌리 깊게 존재해온 순수혈통주의와 미혼모에 대한 편견이 한국의 아기들을 해외로 보내야 했음을 살펴보았다. 더불어서 뿌리 깊은 혈통 우선주의와 단일 민족주의는 결코 성경적 관점이 아님을 확인하였다. 오히려 입양은 하나님의 인류 구속의 방법이었다. 또한 입양은 상실과 애도하는 인간들을 회복하는 방법이다. 부모를 상실한 아동에게 부모를, 자녀를 원하는 부모에게 자녀를 만나게 함으로써 가족을 풍성하게 하는 방법이다. 그러므로 입양 가족을 돕는 상담사들은 무엇보다도 입양에 대한 편견에서 자유롭고 올바른 기독교적 가치관을 가지고 입양 가족을 대면해야 할 것이다. 입양의 동기가 선한 사마리아인과 같은 긍휼의 마음에서 시작되었다 하더라도 부모와 자식 간의 유대관계는 긍휼로는 설명이 충분하지 않은 깊은 사랑의 관계이기 때문이다. 특히 기독(목회) 상담에서 주요하게 다루어야 할 주제로서 존재적 딜레마로서의 수치감, 버려짐의 트라우마, 상실과 애도, 피해

자의 시선에서 하나님의 시선으로의 회복을 살펴보았으며 그 기저에 인간의 연약함과 고통을 체휼하고 구속의 길을 여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가족치료적 접근을 사정 부분으로 제한할 수밖에 없었다. 또한 입양 가족치료 자료들은 주로 해외 자료에 의존하였다. 앞으로 한국 사회 입양 가족을 대상으로 한 효과적인 개입법, 특별히 입양인의 재회 과정에 대한 많은 연구가 나오기를 기대한다.

가족의 유대를 강조하고 혈통을 중시하는 한국 사회 속에서 공개 입양의 용기를 낸 많은 입양 가정에 경의를 표한다. 선한 동기로 입양을 했지만, 삶의 도전 앞에 당황하고 혼란스러워할 수 있는 입양 가정에 기독교(목회) 상담이 가지고 있는 풍성한 자원, 즉 하나님의 자녀 됨의 특권을 내담자와 상담사가 나누는 가운데 상실과 애도를 넘어 회복과 소망의 길로 향하길 기대한다. 입양에 대한 기독교적 가치관이 정착되고 확장되어 나갈 때 인구 절벽 앞에서도 아기를 수출하는 모순이 사라지고 아직 입양의 기피 대상이었던 장애아동 입양 역시도 활발해지리라 믿는다. 인류 구속을 위해 입양의 길을 택하고 이 땅에 오신 예수가 십자가로 세상 속에 거하는 거대담론을 파하시고 그 구원을 완성해 가셨다. 입양 가족 역시 입양에 대한 사회적 편견, 정상 가족 담론에 맞서며 회복의 길을 향해 가고 있으며 때로 그들이 감당해야 할 십자가가 있다. 기독교(목회) 가족 상담사는 입양 가족의 십자가의 길에 증인으로 동행하는 특권을 부여받은 사람들이다.

1) 네이버 지식백과 인용

참고문헌

- 권수영 (2017). **기독교[목회] 상담, 어떻게 다른가요: 심리학과 신학의 만남**. 서울: 학지사.
- 권지성, 안재진, 최운선 (2014). 입양 부모가 경험한 입양 가정 내 형제 관계에 대한 질적 사례연구: 입양 자녀와 비입양 자녀가 혼합된 형제 관계를 중심으로. **한국아동복지학**, 48(12), 1-32.
- 권지성, 정익중, 민성혜, 신혜원 (2012). 연장 입양 아동이 경험한 입양됨의 의미. **사회복지연구**, 43(3), 39-66.
- 권희정 (2015). 입양실천에서 나타나는 정상 가족 담론과 미혼모 자녀의 '고아' 만들기. **페미니즘 연구**, 15(1), 51-98.
- 김경아 (2002). **우리나라에서의 공개 입양의 문제점과 활성화 방안**. 석사학위논문, 인천대학교.
- 김상용 (2009). 『입양축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의 개선 방향: 국내 입양을 중심으로. **가족법연구**, 23(2), 217-256.
- 김영동 (2017). 디아스포라 선교학 틀에서 본 한인 디아스포라 교회의 선교 신학적 과제. **장신논단**, 49(4), 338-364.
- 김유경, 변미희, 임성은 (2010). **국내 입양실태와 정책방안연구**. 서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김향은 (2006). 입양 가족의 적응과정에 관한 종단연구를 위한 기초연구: 공개 입양 가정의 입양현황과 자조 집단 참여 경험을 중심으로. **인간발달연구**, 13(1), 61-80.
- 김혜영 (2018). 미혼모에 대한 사회적 차별과 배제: 차별의 기제와 특징을 중심으로. **젠더와 문화**, 6(1), 7-41.
- 남연희, 김의남 (2006). 공개 입양 부모의 공개 입양만족도와 생활 만족도에 관한 연구. **아동복지연구**, 4(4), 123-139.
- 박은주 (2017). 저출산 극복을 위한 선교적 과제: 출산과 재출산을 위한 살림의 신학. **선교와 신학**, 41(2), 339-366.
- 백경숙, 변미희 (2001). 공개 입양 부모를 위한 사전, 사후서비스 개발을 위한 기초조사연구. **아동권리연구**, 5(2), 81-95.
- 보건복지부 (2017). **국내 입양아 수 및 입양비율**. http://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2708에서 검색.
- 손봉호 (1990). 기독교윤리실천운동. **기독교사상**, 34(11), 86-94.
- 신원하 (2004). 하나님의 자궁 사랑: 입양 신학 토대를 향한 서론. **기독교사상**, 48(11), 250-263.

- 안재진, 최운선, 변미희, 권지성 (2017). 국내 입양 아동의 학업성취수준과 영향 요인. **사회복지학**, 69(3), 141-164.
- 유희경 (2012). **휴먼 다큐멘터리의 입양에 대한 재현과 의미구성: <MBC 휴먼다큐-사랑> '네 번째 엄마'와 <KBS 인간극장> '고마워, 나의 열 손가락'에 대한 분석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성균관대학교.
- 윤정원 (2017. 10. 25.). 학대, 유기, 생사불명... 재판통한 파양 매년 100명 넘어. **베이비뉴스**. <http://www.ibaby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51177>에서 검색.
- 윤진숙 (2014). 현행 입양특례법에 대한 소고: 미국 입양법과 비교를 통한 미혼모와 입양아의 인권보호. **법학연구**, 24(4), 159-184.
- 이기영, 윤연옥 (2010). 국내 입양 발전을 위한 공개 입양제안. **21세기 사회복지연구**, 7(1), 151-170.
- 이은주 (2013). **친양자제도의 개선 방향에 관한 연구: 자의 복리를 중심으로**. 박사학위논문, 전남대학교.
- 임혜영 (2013). **미혼모의 양육과 입양 결정 경험에 관한 해석학적 근거이론 연구**. 박사학위논문, 성균관대학교.
- 전명수 (2011). 한국 아동 해외 입양의 종교사회학: 그 시작과 지속의 배경에 대한 성찰. **한국학연구**, 38, 317-348.
- 정소라 (2016). 한국 입양법 변화의 사회적 의미: 1967년 입양법과 2012년 입양법을 중심으로. **민족연구**, 65, 46-62.
- 조혜정 (2011). 기독교 대학생들의 입양 및 미혼모에 대한 인식 조사 연구: 개정 입양특례법을 중심으로. **기독교교육정보**, 31, 163-184.
- 조혜정 (2017). 입양 어머니의 입양 경험과 입양 가정을 위한 기독교교육적함의. **기독교교육정보**, 53, 199-221.
- 최규련 (2014). **가족상담 및 치료** (2판). 고양시: 공동체.
- 최진섭 (2012). 개방 입양의 법제화를 위한 연구. **법학연구**, 15(2), 261-292.
- 통계청 (2018). **인구총조사: 연령별 미혼모, 미혼부**.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SI1601에서 검색.
- 한연희 (2015). 입양 부모 관점에서 본 입양 아동의 입양 관련 이슈에 관한 심리, 정서적 특성에 관한 사례연구. **부모교육연구**, 12(2), 69-85.
- Boals, A., & Schuetter, D. (2011). A double-edged sword: Event centrality, PTSD and posttraumatic growth. *Applied Cognitive Psychology*, 25(5), 817-822. doi:10.1002/acp.1753
- Erikson, E. (1982). *The life cycle completed*. New York: W.W. Norton & Company.
- Exline, J., Smyth, J., Gregory, J., Hockemeyer, J., & Tulloch, H. (2005). Religious framing by individuals with PTSD when writing about traumatic experi-

- ences. *The International Journal for the Psychology of Religion*, 15(1), 17–33. doi:10.1207/s15327582ijpr1501_2
- Firmin, M. W., & Fulmer, C. K. (2007). Perspectives on adoptive children experiencing more life conflicts than non-adoptive children. *Marriage & Family: A Christian Journal*, 7(4), 269–278.
- Hübinette, T. (2005). *Comforting an orphaned nation: representations of international adoption and adopted Koreans in Korean popular culture*. Stockholm: Stockholm University.
- Kim, J. W., & Henderson, T. (2008). History of the care of displaced children in Korea. *Asian Social Work and Policy Review*, 2(1), 213–229. doi:10.1111/j.1753-1411.2008.00007.x
- Langrehr, K. J., Yoon, E., Hacker, J., & Caudill, K. (2015). Implications of Transnational Adoption status for Adult Korean Adoptees. *Multicultural Counseling and Development*, 43(1), 6–24. doi:10.1002/j.2161-1912.2015.00061.x
- Largen, K. J. (2012). Love to tell the story: reshaping the narrative of adoption. *Dialog: A Journal of Theology*, 51(4), 284–293. doi:10.1111/j.1540-6385.2012.00702.x
- Levin, Y. (2006). Jesus 'son of God' and 'son of David' The 'adoption' of Jesus into the davidic line. *Journal for the Study of the New Testament*, 28(4), 415–442. doi:10.1177/0142064X06065693
- Lionetti, F., Pastore, M., & Barone, L. (2015). Parenting stress: I roles of attachment states of mind and parenting alliance in the context of adoption. *Parenting: Science and Practice*, 15(2), 75–91. doi:10.1080/15295192.2015.1020142
- Neil, E. (2013). The mental distress of the birth relatives of adopted children: 'disease' or 'unease'? Findings from a UK study. *Health and Social Care in the community*, 21(2), 191–199. doi:10.1111/hsc.12003
- Chira, S. (1988. 4. 21.). Seoul Journal: Babies for Export and Now the Painful Questions. *New York Times*. <https://www.nytimes.com/1988/04/21/world/seoul-journal-babies-for-export-and-now-the-painful-questions.html>에서 검색.
- Soll, J., & Buterbaugh, K. W. (2013). **입양 치유: 입양으로 아이를 잃은 어머니의 회복과 성숙을 위한 카운슬링** (오혜인, 김수현, 김준영 역). 서울: 뿌리의 집. (원저 2003 출판)
- U.S. Department of State (2018). *Annual Report on Inter-country Adoptions*. [https://travel.state.gov/content/dam/NEWadoptionassets/pdfs/Annual%20Report%20on%20Inter-country%20Adoptions%20FY2017%20\(release%20date%20March%2023%2020...\).pdf](https://travel.state.gov/content/dam/NEWadoptionassets/pdfs/Annual%20Report%20on%20Inter-country%20Adoptions%20FY2017%20(release%20date%20March%2023%2020...).pdf)에서 검색.

- Verrier, N. (2013). **원초적 상처** (뿌리의 집 역). 서울: 뿌리의 집. (원저 1993 출판)
- Waters, B. (2012). Christian Adoption? *A Journal of Theology*, 51(4), 305-312.
doi:10.1111/j.1540-6385.2012.00704.x
- Yeats, J. M. (2011). The Biblical model of adoption. *The Journal of Family Ministry*, 2, 8-17. Retrieved from https://swbts.edu/sites/default/files/images/content/docs/journal/49_1/49.1_Yeats.pdf

A Study on Family Therapy for Adopted Family with Christian Perspective

Ahn, Mee Ock / Maumnaru Counseling Center

Domestic adoptions are on the rise in Korea and the majority of such adoptive families are Christian. These trends have been examined from a child education and social welfare perspective. In addition, the special adoption act has been discussed from a juristic perspective. However, only few studies have been conducted from a Christian family therapy perspective. This article first examines how the history of adoption in Korea shaped the nation's negative attitude toward adoption and how this attitude has become barriers to adoption today. Next, guidelines for therapists are derived from examining Biblical case studies of adoption and the theology of adoption, exploring the unique needs of each member of the triad of adoption, and analyzing dynamics in adoptive family in psychological and family systems perspective. These social, theological, psychological, and family-therapeutic discussions lead to the implications for how Christian(pastoral) family therapists can support adoptive families in Korea.

- Keywords: adoptee, unwed mother, adoptive parents, family therapy, Christian(pastoral) counseling

접수일: 2018년 8월 21일, 심사완료일: 2018년 10월 6일, 게재확정일: 2018년 10월 11일